

젤렌스키 “북한군 파병 훈련 중”...서방 국가 “사실이면 우려”

우크라이나 대통령 주장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군 파병 움직임과 관련해 “6000명씩, 2개 여단의 북한군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저녁 연설에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에게서 몇 가지 보고를 받았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000명 규모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국가정보원 분석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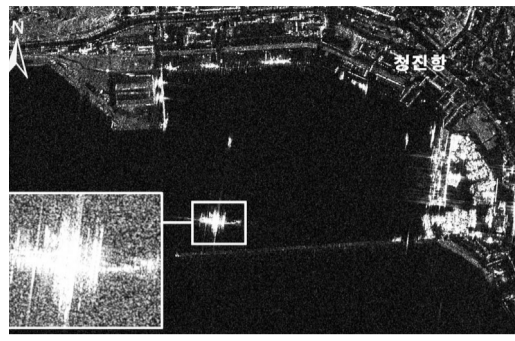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는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을

모두 합해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와 맞서 싸울 병력 총 1만명 가량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것은 도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다. 모든 파트너가 이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의 전쟁 개입을 규탄한 모든 국가와 지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똑같이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날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기저를 질문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보기에 북한은 몹시 가난하기 때문에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을 최전선으로 보낼 것”이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위성 사진 등 관련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북한 병력 수송 목적 러시아 합정 활동. /연합뉴스

고 말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떻게 그들을 관리하고 지휘하나. 언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며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더라도 작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는 중국이 거칠게 반응하지 않도록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도 이 일에 매우 신중하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협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북한군 파병설을 제기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연설에서도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보도에 비춰 파트너들의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방에 대

을 촉구했다.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로 보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서방 지원국들은 아직 대체로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는 식의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로이터통신에 “러시아가 얼마나 절박한지 보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란 무기에, 북한 군인에 의존하고 있다.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28~31일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는 평화협상을 있을 수 없다고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석 달만의 재회 푸틴-시진핑 “세계안정화 더 협력”

밀착 과시...우크라 상황 등 논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현지시간) 러·중 협력이 세계 안정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러시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개막한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했다.

브릭스는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경제국 모임으로 출범한 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에티오피아 등에 가입 승인을 내주며 비(비)서방 국가 연합체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국제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세계 안정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우리는 세계 안보와 공정한 세계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다자 플랫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현대 세계에서 국가들이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이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우리의 다면적인 협력은 평등하고 상호이익이 되며 외부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내비친 시 주석은 “우리는 동맹을 맺지 않고 대결하지 않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강대국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올바른 길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도전을 견디며 먼 길을 걸어왔고 전혀 없는 성격을 갖게 됐다”며 “국제 무대의 심각한 변화가 중러 관계를 훼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으로 칭함) 이후 긴밀한 관계를 강화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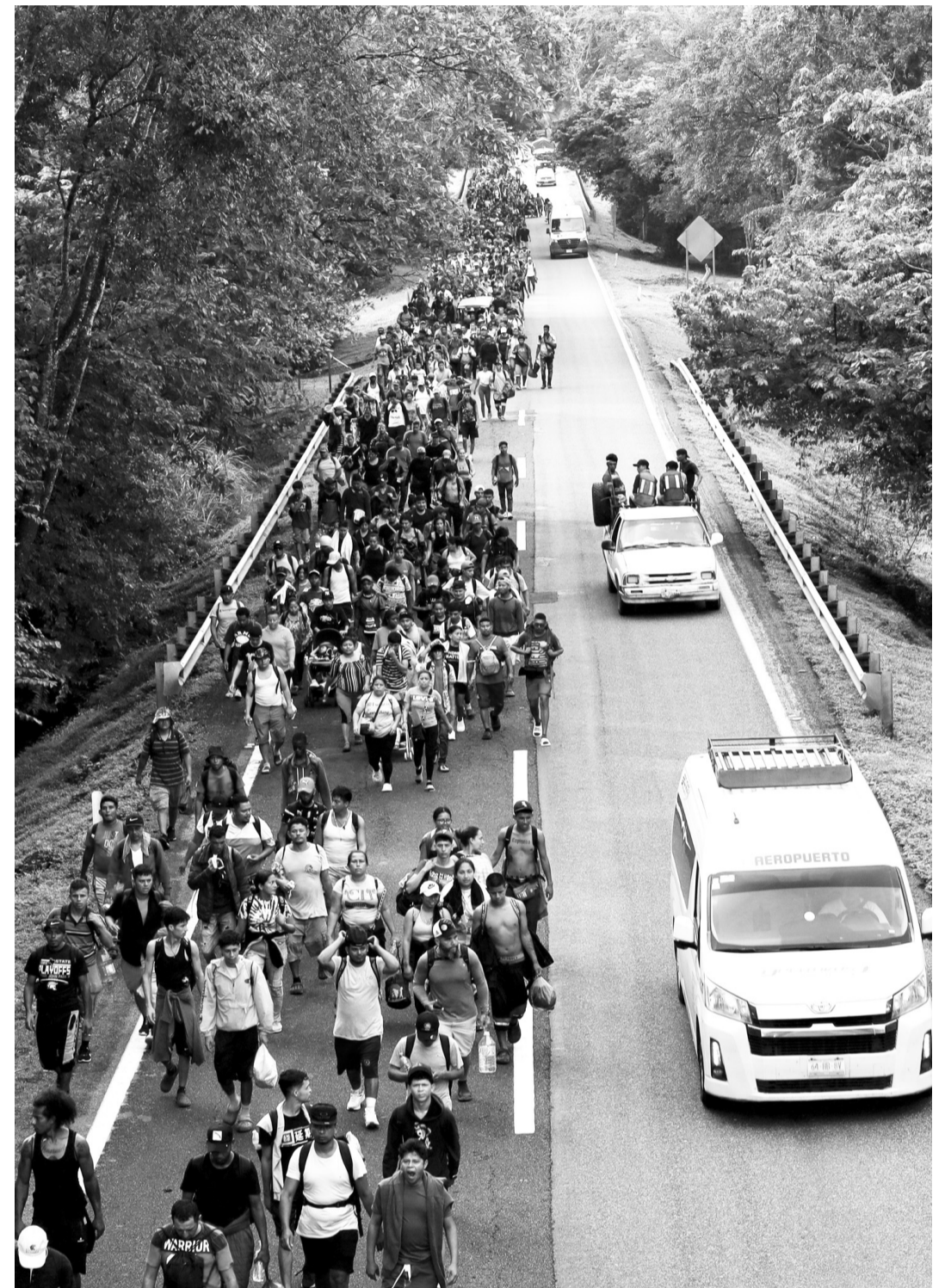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중국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년간 네 차례 회담하며 밀착을 과시했다.

가장 최근엔 7월 카자흐스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회담했다.

중국 CCTV는 시 주석이 탄 비행기가 카잔으로 도착하기 전 러시아 전투기의 호위를 받았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브릭스를 사실상 주도하는 국가인 만큼 이날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중동 정세 등 국제 현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다뤄지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미국행 이민자 행렬 미국 대통령선거(11월 5일)를 보름 남겨두고 멕시코-미국 접경지대로 향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 미국행 이민자 행렬이 22일(현지시간)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 비야 코말티틀란에서 북부 접경지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맥도날드 대장균 햄버거 ‘날벼락’

미국서 1명 숨지고 49명 입원

미국에서 대장균에 감염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10개 주에서 1명이 숨지고 49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CDC는 맥도날드의 퀴터파운더 햄버거에서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대장균 변종인 ‘O157:H7’이 검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CDC는 피해자 모두가 증상 발현 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으며 특히 퀴터파운더 햄버거를 먹었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다수였다고 말했다.

CDC는 조사관들이 양파와 소고기 패티의 오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재료가 대장균에 오염됐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후지산 분화해도 일단 자택 머물러라”

일 정부 “화산재량 많으면 대피”

일본 정부가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하더라도 낙하하는 화산재량이 많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집이나 안전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좋다는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조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후지산 분화로 화산재가 낙하할 경우 “가능한 한 재가 떨어지는 지역의 자택과 안전한 장소에 체재하며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지침을 설명해 대략적 합의를 끌어냈다.

일본 정부는 화산재가 떨어지더라도 바로 위험해질 가능성이 작고, 주민 다수가 동시에 피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지침을 정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땅에 떨어지는 화산재량이

많으면 대피를 권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면에 쌓인 화산재 두께가 3~30cm이고 화산재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 상황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도록 했다. 화산재 두께가 30cm를 넘으면 목조 주택 등이 쓰러질 우려가 있어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1707년 분화와 비슷한 규모로 분화하고 동북쪽으로 바람이 불면 15일째에는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부근에 화산재 약 30cm가 쌓이고, 도쿄 신주쿠구와 지바현 나리타시에도 3cm 이상의 화산재가 관측될 것으로 가정했다.

정부는 이번엔 마련한 지침을 담은 주민 행동 계획을 연내에 정리해 각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